



‘의료계 집단행동’ 수원 현장 점검한 경기도 김동연, “정부, (의대정원) 중장기적 계획 갖고 추진했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진료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광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정부가) 단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의 6개 공공병원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니까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진료 연장이나 응급실 운영 등으로 고생하시는 현장 의료 관계자분께 도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

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원병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외래진료 마감은 오후 5시 30분에서 8시로 2시간 30분 연장했다. 집단행동 추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도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와 의정부성모병원도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병삼/기자



박형준 부산시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접견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오후 4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프랑스대사를 만나, 부산-프랑스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먼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에게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부산과 프랑스는 문화·예술,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환영 인사를 전했다.



지나해 7월에 부임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작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및 PSG생태레프-전북 현대 부산 친선경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부산시 공식방문이다.

이어, 박 시장은 “오늘 오전 미쉐린 가이드 선정 부산 레스토랑 발표는 특색있는 미식문화도시 부산 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올해 부산은 높아진 혁신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원년이다”라고 전하며 특히 문화강국 프랑스와의 교류 협력이 문화·관광도시 부산으로의 도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할 것이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부산과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박 시장은 “우리는 자연과 생태, 예술이 조화를 이룬 ‘미술허브도시 부산’을 조성해 글로벌문화관광도시, 생태친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라며 “이 기회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안 산책로를 걸으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바다와 자연, 예술이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명소를 키울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리라 자신했다.

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는 프랑스 타이어 제조회사 미쉐린이 매년 봄에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가이드. 통상 ‘식당에 별점(1개~3개) 매기’ 방식으로, 레스토랑 등급을 부여하며 1926년 시작해 현재 전세계 41개 국가의 주요 도시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있다. ‘미쉐린 가이드 서울’은 2016년 선정됐고, 2024년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부산이 그 선정 도시로, 어제(22일) 3곳의 미쉐린1스타 레스토랑을 포함해 총 43곳이 선정 발표됐다.

이에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라며, “첫 번째 미쉐린 가이드 부산 발간을 축하드리며, 미쉐린 가이드 서울&부산 2024 발표일에 부산을 방문해서 기쁘다. 이번 미쉐린 가이드 부산의 발간을 계기로 부산이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중요한 도시라는 점을 느끼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프랑스는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관계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은 양국 수교 140주년 되는 해로, 우리대사관은 양국의

이기에,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는 “주한프랑스대사관이 부산과 프랑스의 상호 교류에 가고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문화·관광뿐 아니라 영화·영상 등 문화콘텐츠, 미술관 등 문화예술시설, 경제통상,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산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대사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부산-프랑스 간 교류 협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며, “부산을 찾아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산에서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이날 접견을 마무리했다.

김희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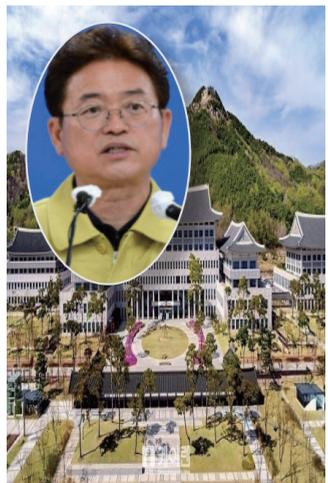
독도는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 천명!

독도는 경상북도가 관할하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 천명!

경상북도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무모하게 반복하는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로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파견 및 한·일 양국의 건전한 우호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조치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한민국 땅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천명했고, 일본은 무모한 역사 왜곡의 야욕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반성과 참된 용기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日 시마네현 소위 ‘독도의 날’ 규탄성명서

- 일본 시마네현이 매년 2월 22일 개최하는 소위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무모하게 반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파견 및 한·일 양국의 건전한 우호 협력 관계를 저해하는 조치들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한다.
- 일본은 무모한 역사 왜곡의 야욕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반성과 참된 용기의 자세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위해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오세훈 서울시장, “경전철 사업 후퇴 없을 것”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상반기 중 개선안을 국토부와 KDI에 제안할 예정”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GTX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서울시 입장이 확인됐다.

문성호 서울시장(국민의힘, 서대문2)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시교통실장, 균형발전본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정질문을 통해 경전철 사업의 견제함을 확인하고, 서울시 지역별 교통불균형 해소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경전철 신설의 단초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조사로, 합리적인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2019년 기획재정부가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중 기존에 있던 ‘지역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한 이후 서울시 철도사업 중 예비타당성검사를 통과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정책 기조가 존중되고 서울시 내 그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교통취약지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에 집중된 예타 지표는 경전철 사업 등 소외지역 개발을 위한 ‘약자와의 동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역균형발전평가를 포함해 지역 낙후도에 따라 가점 혹은 감점

을 분석해야 함을 주장한 서울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균형발전 본부는 정부대상 예타지표 변경을 건의하는 한편, 예타 경제성 항목의 비용편익 부분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특히 ‘강북형단선’ 사업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로 기재부와 국토부에 적극 의견 개진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상반기 중 도출된 개선안을 국토부와 KDI에 제안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부사업인 GTX로 인해 서울시 경전철 사업 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GTX로 인해 오히려 교통소외지역이 더 부각될 것이고, 역사 간 거리가 먼 GTX 특성상 경전철은 분명 필요하다. 경전철 사업 지속한다. 수도권 예타 개선해 경제성 이고 비중 높여 강북지역(비강남지역) 교통 불편 해소 위해 정부와 심도있게 논의, 교통소외지역 해소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중소기업 저탄소 제조 기반 강화

3월25일까지 중기 탄소중립 제조혁신시설 고도화 사업 모집

전라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저탄소 제조 기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제조 혁신 시설고도화 사업 참여 기업을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제조혁신 시설고도화 사업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기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설비 구축 등에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1단계로 탄소 수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의 종합적인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탄소 저감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2단계는 ▲친환경·저탄소 시스템 및 시설 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탄소저감 관련 설계 ▲시제품 제작, 5개 지원 프로그램 중 기업이 선택한 2개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전남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고,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으로 탄소배출 업종인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주력 산업 연관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사업공고문을 통해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기반산업과, 전남테크노파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소명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선제적 친환경 저탄소 제조혁신 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 특허받은 살충성 효력증진제…우수성 입증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살충성 효력증진제’ 특허가 지식재산가치평가(IP평가)에서 관련 업계 최고 수준의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식재산가치평가는 정부 지원 기술 평가 기관인 특허법인 도담이 진행했으며, 평가 대상 지식재산가치(IP) 기술명은 ‘식물 효력증진제를 이용한 살충성 유기농업자재 제조 기술’이다.

평가 주요 대상인 살충성 효력증진제는 진딧물, 가루이, 미국흰불나방(유충), 물바구미 성충, 방패벌레, 작은뿌리

리파리 등에 효과를 보이는 살충성 원제의 효력을 증대시켜 방제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도록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 및 특허 출원·등록했다.

평가 결과, 특허의 기술적 가치평가액은 13억 8000만 원, 경제적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관련 업계 최고 평가를 받았다.

도 농업기술원은 혁신성, 차별성, 기술 경쟁 강도, 활용성, 기술사업화 환경, 모방난이도 등의 부분에서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게다가 2021년 한국환경농학회에서 나온 발표에 의하면 전 세계 천연식물보호제 시장 규모는 2020년 43억 불에서 2027년 약 112억 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바이오 비료를 포함한 친환경농자재 시장은 25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번에 개발한 효력증진제의 높은 가치평가로 인한 농가 활용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석 도 농업기술원 농업해충팀장은 “방제제 개발이 쉽지 않은 총체벌레

와 응애에 대한 효력증진제 또한 완성도를 각각 90%와 70%로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것이 완성되면 농작물에 문제를 일으키는 해충 대부분에 무농약 해충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 출원된 살충성 효력증진제는 도내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웨어그린에 유상 기술 이전했으며, 시판 중인 유기농업자재에 첨가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최정근/기자

경북도의회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전문성“글세?”

2월 22일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 보다 무거운 책임감 요구 쏟아져

경북도의회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는 2월 22일 회의를 열어 김남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문화관광공사의 책임 경영과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뿐만 아니라 관광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책임감이 없었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프로젝트와 미완성 단발 사업이 많았으며 문화관광공사를 이끌어 갈 CEO로서 아이디어를 실행할 때 신중함과 공직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박규탁 부위원장(비례)은 후보자가 공직 재직 시 추진한 상주국제세마장이 415억원을 들여 건립됐으나 연간 수입이 5억 원에 불과하고 유지비용은 40억 원 가까이 소요될 정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통합 후 기능 배분, 수익 개선 방안 등 경영목표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문화관광공사가 80~100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고 문화엑스포와 통합된 만큼 엑스포공원 유지비와 인건비는 도 전입금이 아닌 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 후보자가 2030년에 개항하는 대구경북신공항 시대 대비 시책(Two Port 시책)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며 단기 성과 목표부터 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백산

을 비롯한 북부 지역 관광 개발, 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공사 직원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경숙 위원(비례)은 문화관광공사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통합 시너지 효과가 없는 양 조직의 “따로국밥” 식 경영은 그만두고 조직 간 화합부터 이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중복문제 해소와 유기적 연계를 당부했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골프장 운영, 부문단위 정주 인구 확보 계획이 부실하다고 고집과 보문단지, 안동관광단지에 민자유치 활성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덕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농지 취득 과정을 캐물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AI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과 하위직 직원들의 고충 해결, 부서 간 직원들의 소통을 요구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매각된 보문상가 및 신라밀레니엄파크 개발 착공 유도,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시 문화관광공사 역할 주문했다.

연구실 위원(포항)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의욕 자제와 내부 구성원 간 합의와 동일한 목표 설정을 통해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성과를 거두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오랜 근무에 따른 국제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네트워크 부족을 우려하기도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모습

했다. 대기록 위원(예천)은 타 시·도 관광공사와의 차별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문하고, 리더로서의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CEO로서 소통과 협력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공익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 관광 정보 제공, VR체험장 조성, 안동관광단지 민자유치 및 미착공 부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경북 북부 인문관광자원 인프라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한복진흥원 설립 효과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또한, 부지의 절반 이상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매각된 후에도 침체된 감포해양관광단지의 활성화와 부문단위 수상공원장 활성화, 엑스포공원을 활용한 야간 관광프로그램 개

발을 촉구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후보자는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단발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사업성 검토 없이 시행에 옮겨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로 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전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책임감 없는 행동을 보여왔다고 꾸짖었다. 또한,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지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신창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조속 추진 촉구

지연되고 있는 신창초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문제점 지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1971년 개교한 도봉구 서울신창초등학교는 2021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진행이 더딘 상태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인 2019년, 신창초에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22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사업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홍국표 의원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됐다면 체육관 건설이 이미 완료됐을 것이고, 사장으로 임명되어도 성과도 안 나는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고 시도해 보고 싶은 사업은 개인 돈으로 하라며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호통쳤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도에서 기관을 유지한 후 기초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관광공사의 안동 이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도봉구청이 서로 일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다목적체육관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복합화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으로 증가해 공동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양 기관이 타당성 조사의 주체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사업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사업의 주체는 북부교육지원청이므로 타당성 조사는 북부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수행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양 기관을 중재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청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은 변화된 학교의 모습에 기대가 매우 큰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최광수/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부산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조상진 의원, ‘뿌리산업 연구모임’)은 2월 23일,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학계 및 연구계 등 뿌리산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조상진 대표의원은 지난해부터 부산지역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연구활동을 비롯해 지역 뿌리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조업 디지털화 등 산업혁신 요구 증대에 따라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발맞추어 부산 뿌리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부산시 첨단산업국 산업혁신과에서 뿌리산업 관련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부산시는

2024년 ① 하이테크 기반 금형기술 고도화 지원사업(’23. 1.~’25. 12., 3년), ② 부식제어 융합기술 활용 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사업(’22. 1.~’24. 12., 3년), ③ 뿌리산업 통합 지원체계구축 및 기술고도화지원사업(’19. 1.~’24. 12., 6년), ④ 부산 뿌리기업 스마트 공동물류 플랫폼 구축(국가직접지원, ’22. 8.~’24. 12.), ⑤ 부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국가직접지원, ’19.~’26., 8년), ⑥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24.~’25., 2년), ⑦ 기계부품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지원(’24. 1.~’24. 12., 1년)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경영지원 등 뿌리산업 업종별 차별화된 지원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동의과학대학교 서영호 교수는 2023년 추진했던 정책연구 ‘부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따른 후속 연구를 통해 세부사업의 설계 및 추진방안 마련 등 부산시 정책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유석현) 부산기계기술연구원 박인덕 레이저기술실용화연구실장은 (가칭)부산뿌리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내 다양한 분야의 뿌리산업 기업간 연계를 위해 중심점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안하며,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도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노상태 상무사씨는 생산규모 세계 5위, 수출 2위 수준의 금형산업이지만 대부분 기업이 종사자 10인 이하로 영세하고, 연령이 4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열악한 업계의 현실을 전했다. 또한 첨단기술 습득이 쉽지 않은 양지 시대 변화에 부응하려면 신기술(디지털, 스마트화 등)

및 신재료(탄소소재, 친환경 등)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뿌리산업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산시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상진 의원은 “열악한 뿌리산업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예산을 수반한 정책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뿌리산업 지원체계를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뿌리산업 연구모임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이 대표로 있다.

김희태/기자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여주시농업기술센터, 74개 시범사업 120개소 선정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22일에 2024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 및 관계관 19명이 참석하여 2024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5개분야 74개사업(총 사업비 51억원)에 대하여 120개소의 대상자(단체) 선정과, 유용 미생물체 가격을 심의 결정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했으며, 1

월 31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총 222 농가 및 단체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친 후 심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박중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위원장)은 “여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내년에 더 많은 국·도비 예산 확보로 좋은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선정된 대상자는 시범사업추진 요령, 보조금 집행절차 등 사전교육을 받은 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범상/기자



여주시농업기술센터, 74개 시범사업 120개소 선정

'아동권리 우리 손으로'...익산시 제5대 아동의회 마무리

24일, 제5대 아동의회 정례회 및 해단식 개최

익산시 제5대 아동의회가 아동 참여권 실현과 권리 증진을 위한 1년간의 활동을 마쳤다.

시는 24일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다목적홀에서 제5대 아동의회 정례회 및 해단식을 개최했다.

제5대 아동의회는 지난해 3월 선발된 50명의 아동이 4개의 상임위(안전, 교육, 문화, 복지)에서 활동하며, 아동 권리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 및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김민웅 아동의장(마한초5)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아동교육위원회 임에는 위원장(공동초5)의 3분 발언인 '청소년 인터넷 성적광고 배제'와 지난 제6차 임시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은 아동문화위원회 정하늘 의원(가은초6)의 '어린이를 위한 체육시설 확대', 아동안전위원회 김수린 의원(이리동초4)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로 각 위원회의 제안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의사 표결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해단식에서는 익산시의회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에게 아동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전달됐다. 전달된 안건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으로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웅 아동의회 의장은 “아동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낸 우리의 활동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마

을껏 뛰어놀 수 있는 익산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갔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뿌듯하다”며 “지역의 훌륭한 인재가 될길 기대하고, 아동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제5대 아동의회는 마무리됐지만,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익산시 아동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아동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아동 관련 정책 제

안과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제6대 아동의회 의원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선수/기자



익산시 제5대 아동의회 정례회 및 해단식 모습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경기문화재단, 학교 안에서 누구나 함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만든 학교 안 문화예술공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은 2024년 2월 8일 시흥 신천고등학교 야외정원공간에 누구나 함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공감터 Space UBO_Art & Culture'를 조성했다. 본 공간은 2023년 장애인학교등 문화예술시설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학교 갤러리 운영 심화 모델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 선정부터 조성 운영까지 전문 기관 간의 협력사업으로 추진됐다.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장애인학교등 문화예술시설 지원사업은 2022년 파주 한빛중학교, 부천 고강초등학교 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학교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천 고강초등학교 문화예술복합공간은 음악, 미술, 공연, 학교쉼터 기능이 결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번 신천고등학교 야외문화예술공간은 온실 갤러리 형태의 문화공간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공간으로 신축됐다.

이 떨어지는 야외공간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또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이 가능하게 가변형 벽면을 채택했으며, 온실 공간의 단점을 보완한 천정형 전동환기시설을 보강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공간조성과 함께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는 시범적인 학교 전시 '뻘하지 않아서 뻘 FUN'을 준비했다. 개관전시는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되며, 다양한 문화예술체험교육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공감터 Space UBO_Art & Culture' 공간조성 설계를 맡은 황태훈(우보건축사사무소)소장은 기존 야외공간은 햇볕이 잘 들지 않고 접근성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임광현 경기도의원, "지역문화재생사업 방안 모색하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월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경기도의회 내부 심사 및 한국지방자치학회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는 지난 2022년 카카오톡 불통사태, 2023년 학생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사태 등의 디지털재난으로 인해 학생, 교사, 학교의 수많은 피해를 예방 및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 12일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하

여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재난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 시책 및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기관리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시스템의 정기적 안전점검과 디지털재난 대비 훈련에 대한 고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황진희 의원은 "K-에듀파인(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 4세대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에듀테크(Edu-Tech,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교육 방법)의 도입과 발전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 생산과 수집되는 디지털정보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적 질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는 과거와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특히, 최근 5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50% 급증하고 있고 그 공격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요즘은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한 경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제10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11대 의회에서도 오랜 의정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언제나 의정활동에 열심수범하며 경기교육의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 도민 복지증진 향상,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경기여성인재뱅크사업, 질적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장민수 의원, '24년 업무보고 통해 경기여성인재뱅크 활성화 방안 모색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혜순)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업무보고에서 전문가 선정 기준 명확화 및 대표성 확보 등 경기여성인재뱅크의 질적 개선을 당부했다.

경기여성인재뱅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05년부터 운영해 온 감사은행과 경기전문여성DB를 통합한 지역 여성 인재풀로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전문가를 추천하거나 관련 교육이 필요한 곳에 전문강사를 연계함으로써 여성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독려하는 사업이다.

장민수 의원은 "현재 경기여성인재뱅크는 1,645명의 인재풀을 확

보중이며 금년도에 이를 2,5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보유중인 인재 리스트들을 점검해보니 개인정보 재동의 미비 등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꽤 많았다"며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또한 장 의원은 "각 분야별로 보유중인 인재풀의 편차도 심하고 등재기준의 문턱도 높아 인재 발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준설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분야별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는 "대표성에 대한 고민도 여전한바,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기준을 세우고 경기여성인재뱅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재균 위원장,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체계적 추진과 다문화가족과 중복사업 개선 요청

총괄 통합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 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2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졸속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설치 시에 피해자 임시숙소 마련과 피해자 보안 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소 일

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여성가족국 김미성 국장은 "여성가족국 조직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충분한 논의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기관과의 유기적 통합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또 김재균 위원장은 현행 다문화가족과와 외국인정책과 두 부서간 유사, 중복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가능한 중복사업은 피하고 다문화가족과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범상/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천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추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사업을 선정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수도계량기 보호틀 교체사업”은 보행자의 낙상 사고 및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수도관으로 불편을 겪는 수용가에게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관이 노후화될 경우 내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염으로는 슬러지, 슬라임, 스케일 및 녹이 있으며, 장시간 방치할 경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이천시는 2022년에는 3억2



천만원, 2023년에는 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520세대를 지원했다.

올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약 10억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해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2024년도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 중 수도물 관련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민

들의 건강 및 수도물 안전을 위해 위해 이천시 자체사업으로 4억 8천만원(시비100%)을 추가 편성하여 수용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 공용배관 최대 60만원 이내에서 60㎡ 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90%, 85㎡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80%, 130㎡이하 노후

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우선적으로 전액 지원한다. 다만, 재개발사업,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거나,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량한 주택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택 소유자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면 수도과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치며, 지원금 지급 절차는 신청인이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또는 경쟁 완료 후 공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준공검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수도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과 맑은 물공급을 위해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체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열어 정책 제언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올해 시가 추진하는 70건 사업 계획 심의

용인특례시는 지난 22일 2024년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용인 청년 워크브릿지(적성검사를 통한 맞춤형 진로설계 및 취업컨설팅) ▲청년 커뮤니티 포털 구축(청년대상 맞춤형 정보제공 온라인플랫폼) 등 70건의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시는 지난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제안으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자금 대출에만 국한하던 것에서 대출금 성실납부자라도 확대해 대상자의 폭을 넓힌 바 있다.

시는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용인청년LAB 프로그램 확대,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 청년들에게 호응이 큰 사업에 청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김한울 공동위원장은 “우리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모집 공고 시 청년 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용인시에서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오픈하고 있다는 점에 잘하고 있다’,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의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학식시험장 등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에 안내문을 비치하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는 이날 청년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안된 청년세대의 생각을 전 부서에 공유해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과 ‘용인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시의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해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제3기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해 2025년까지 활동한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남한산성 도시연합체 구성을 위한 첫걸음 사전 실무협의회 개최

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남한산성 도시연합체’ 사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남한산성 도시연합체’는 옛 광주 문화권이며 초기 백제 수도 중심지였던 역사적 배경을 함께 하는 도시 간의 상호 협력 및 우호 증진을 하고자 추진해 온 교류사업이다.

이날 사전 실무협의회에는 광주·하남·성남·강동구·송파구·서초구·강남구 등 7개 시·구로 구성된 ‘남한산성 도시연합체’ 실무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의 규약 및 명칭, 추후 나아가야 할 연합체의 사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각 도시 방문을 시작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까지 바쁜 일정을 달려

온 만큼 실무협의회를 발판으로 ‘남한산성 도시연합체’의 출범을 위해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옛 광주권 7개 도시가 서로 뜻을 같이해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경제·행정 분야에서 상호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해 시기별 시나리오 준비하고, 대응방안 수립하라”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관련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제



이재준 수원시장은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시기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당부했다.

23일 수원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응급환자,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제때 치료·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2주 차, 3주 차, 4주 차 등 시기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소방서, 보건소, 상급병원이 상황을 공유하며 통합 관리·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각 보건소는 민원대응센터를 만들고, 의료 현장을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각 구 보건소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개원의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 전체 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현장관리를 할 예정이다. 또 사설구급차(EMS)를 확보해 구급차가 부족할 때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수원시도 23일 이재준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을 강화했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종합반 ▲비상대응반 ▲홍보지원반 ▲구조구급반 ▲지원반 등 5개 반 22명으로 구성됐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는 4개 구 보건소장과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월성기념병원 등 의료기관 관계자, 수원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경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동네 병원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내용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인공지능 기반(AI) 민원상담 서비스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방문 줄이어

인공지능 기반(AI)으로 민원상담 업무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평가

지능형 민원상담의 선진화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화성시 인공지능 기반(AI) 민원상담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상담품질 제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민원상담 콜센터에 민원상담전문 ‘인공지능(AI) 챗봇’과 초거대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 AI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 챗봇’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세정 △교통 △차량 △일반행정 △문화·관광·체육 △환경 등 8개 분야 260여 개 항목 다빈도 민원에 대해 24시간 쉽고 빠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과 상담 분야로 사용자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용 건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에는 김포시청이, 2월에는 경주시청이 화성시를 방문해 챗봇 서비스 구축과 운영에 대해 벤치마킹했으며, 타 지자체의 관련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원상담 AI어시스턴트’ 서비스 구축을 마쳤다. 이는 초거대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콜센터 외부민원의 자동 분류 및 응답, 안내 등 상담사를 통한 지원하는 서비스로, 민원인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민원 응답시간을 단축해 상담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초거대인공지능을 콜센터 상담 업무에 도입한 선례가 없어 화성시의 민원상담 AI 어시스턴트는 타 지자체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되고 있으며, 특

히 이달에는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방문에 구축과 운영 관련 사항을 벤치마킹했다.

시는 AI 챗봇 서비스 분야를 점차 확대하고, 상반기 중 민원상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의 민원 답변 정확성과 신뢰성 검증을 거쳐 현장에 적용해 민원상담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민원상담의 디지털 전환으로 다양해지는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에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성남시-4개 기관 ‘가족 친화 미래세대 육성’ 협약

교육지원청, 어린이집총연합회, 공립·사립 유치원협의회와 협업 체계 구축

성남시는 2월 23일 오후 3시 10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4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가족 친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 내용은 ▲인구 구조 이해를 통한 미래 사회 변화 예측 및 역량 배양 활동 지원 ▲결혼·출산·양육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가족 친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공유

이순화)다. 이날 협약은 가족 친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인구 구조 이해를 통한 미래 사회 변화 예측 및 역량 배양 활동 지원 ▲결혼·출산·양육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가족 친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공유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홍보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미래세대에 인구 문제에 관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마련돼 출산과 가족공동체에 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개소

여주시 공약사항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기반 확대'

여주시에서는 2020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체험홈' 총 4개소를 운영해오며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 및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지난 2월 22일 여주시(시장 이충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3개소를 설치하여 개소식을 개최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체험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장애인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주는 뜻깊은 공간이다.

2023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 3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10월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여주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센터장 조정오)와 운영 협약을 체결했으며, 4개월

의 준비기간 끝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개소하게 됐다.

현재 자립생활주택에는 5명의 입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만족도가 높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설에서 나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며 자립에 한걸음 내딛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도록 여주시에서 더 많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안산시, 국내 홍역 환자 발생에 따른 주의·예방 당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홍역 예방

안산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국내에서 해외 유입에 의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홍역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홍역은 호흡기 분비물(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특히 전파력이 매우 강해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90% 이상 홍역에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은 기침, 콧물, 결막염, 발열을 시작으로 온몸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나며, 심하면 설사, 중이염, 폐렴, 급성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홍역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제때 접종하면 감염병 발병을 막을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MMR)을 맞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평소 개인위생관리와 함께 해외여행 전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며 "해외여행 후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최정부/기자



하남시 덕풍3동·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 증진 민·관 업무 협약 체결



하남시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지역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덕풍3동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대한 협력

▲지역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 과정에서 관련 업무에 대한 협력 및 연계 ▲중점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등 적극적으로 협력과 연계를 하기로 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 4월 운영을 시작으로 19년간 하남시

역의 특성 및 주민 욕구를 파악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국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는 전문적인 복지기관이다.

명은주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그동안 쌓아온 복지사업의 노하우와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덕풍3동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전심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창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덕풍3동의 취약계층을 위한 협력에 기대가 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민권 덕풍3동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력이 기대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더불어 지역 내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위기 해소를 위해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의정부시는 2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동별 체육진흥회 신규회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동 체육진흥회는 '의정부시 체육진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월부터 체육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동장 추천을 통해 14개 동 43명의 신규회원을 각 동 체육진흥회 회원으로 선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43명의 회원을 대

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향후 동 체육진흥회 신규회원의 임기는 2024년 2월 23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이다. 이로써 신규회원을 포함한 의정부시 동 체육진흥회는 총 284명의 회원으로 재구성됐다.

한편, 동별 체육진흥회 회원은 ▲시가 주최하는 체육행사 수행 ▲지역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지역 체육 단체 및 동호인 조직 육성 ▲그 밖에 관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김동근 시장은 "동 체육진흥회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이 의정부시 체육진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시민이 건강한 체육도시인 의정부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안양시, 희망 담은 '안양만안답교놀이 및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열려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8호 '안양만안답교놀이', 달집태우기 등 재현

정월대보름인 24일 안양시 만안구 만안교와 박석교에서 한 해 희망을 담은 '안양만안답교놀이 및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가 열렸다.

24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안양문화원이 14시 안양만안답교놀이 재현으로 달맞이 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8호인 안양만안답교놀이는 정월대보름에 다리를 밟으며 건강을 기원하고 한 해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로, 이날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가 만안교에서 길놀이, 다리밟기, 무동춤놀이, 선소리꾼놀이, 대동놀이 등을 선보였다.

이어 16시부터 박석교 밑 둔치 일대에서 달맞이 축제가 진행됐다. 대보름의 전통음식과 잣불켜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돼 가족, 친구 등 많은 시민들은 즐

거운 추억을 쌓았다.

본격적인 축제는 17시 정월대보름 기원제를 시작으로 취타대, 버구춤, 채상소고춤, 날뽕북놀이, 안양검무 등 시민들의 흥을 돋우는 공연과 기념식이 펼쳐졌다.

한 해 소망을 적은 소원지(소지)를 달집에 묶고 하늘로 올려 보내는 달집태우기는 19시 50분경 최대호 안양시장과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시민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달집을 태우며 "이웃과 마을이 다함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고 공동체가 화합하는 우리 민족의 풍습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라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시민들께서 뜻하는 일들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귀밝이술과 기원제 음식을 나누는 복

나누기와 대동놀이 등 마지막까지 많은 시민들이 달맞이 축제를 함께 즐겼다.

안양시는 시민들이 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안경찰서, 안양소방서, 자율방범대, 특전사전우회, 모범운전자회 등 60여명의 안전관리요원을 행사장에 배치했다. 특히 달집태우기와 관련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다.

한편, 안양문화원은 정월대보름 세시 풍속을 계승하고 시민과 함께한 안양시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기념하고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이달 29일까지 달맞이 축제의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이메일로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안양문화원은 3월 중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총 6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전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문화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우용/기자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전남도, 전국소년체전 등 자원봉사 참여하세요

전남도, 광주-전남 18세 이상 1천200명 3월 15일까지 모집

전라남도는 오는 5월 열리는 2024년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 1천200여 명을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거주자 만 18세 이상(2006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활동지역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역할과 자세 등 기본 소양교육 후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종합상황실 지원, 개회식 지원, 홍보 지원, 의료 지원, 경기 운영 지원, 경기장 안내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 유니폼, 기념품, 활동 실비, 우수 봉사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김영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청소년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기회와 도약의 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며 “‘으뜸전남 자원봉사! 함께날자 감동체전! 비전 실현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전체육대회는 오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와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박종배/기자



2024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2024. 2. 26.(월) ~ 3. 15.(금) / 19일간

모집인원: 1,200명

모집대상: 만 18세 이상(2006.5.1 이전 출생자) 광주-전남 거주자,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or.kr)에 가입한 자로 미가입자는 영도방문복지지원팀(020-120-1200)에 문의하여 가입 가능

신청방법: 영도방문복지지원팀(020-120-1200) 신청 가능하거나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신청분야: 2024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자원봉사활동종류(181365.or.kr)

활동지역: 경기장 안내소, 경기운영지원, 종합상황실, 개회식 분야 등

활동혜택: 자원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유니폼 및 기념품 제공, 활동실비 지원

문의처: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020-120-240-2333)

나주시, 중장년 여성농업인 400명 특수건강검진 무료 지원



이달 29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고된 농작업으로 각종 질병·질한 위험에 노출된 중장년층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선정을 통해 짝수 연도에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특수건강검진비 22만원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건강검진은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농작업 관련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여성농업인에 자주 발생하는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농약 중독,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 폐활량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을 검사해 조기진단하고 전문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은 이번 달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검진의료기관은 빛가람종합병원으로 검진비용 전액(국비50%·도비12%·시비38%)을 지원받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질병 예방과 조기진단을 통해 검진 비용 부담을 덜고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남원시, 선도기업 대상 투자유치 서한문 발송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업 투자 요청

남원시는 26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 특색화 산업 위주로 1,000여개 선도기업(영커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서한문과 제안서를 발송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제지원,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방투자거점을 육성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최경식 시장은 영호남권 교통 및 물류 중심도시의 강점과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한 기업맞춤형 인력제공, 기업 지원 제도 개선 등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회의

망 남원에 기업의 투자를 요청했다.

또한, 남원시는 민선 8기에 두 번의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및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항공, 바이오, 농생명 등 5개 미래산업 분야에 지역특색화산업을 지정하여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이 22일 현업업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4년도 제1분기 1차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 현업업무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례 전파 및 사고대처 요령 숙지 등 현업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

과 근로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업업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라 반기마다 12시간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군은 오는 3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및 기계기구 재해예방 등과 관련하여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업근로자 대상으로 분기별 2회

씩 총 8회에 걸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만규 부군수는 “근로자 모두가 무사하게 일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 없는 건강한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순천시, 적극적 산불예방 활동 추진

산불예방에 시민 관심과 협조 당부, 소각행위 절대금

순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산불예방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소각행위 위험성을 알리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통시장, 순천역, 낙안읍성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 피켓, 전단지 등을 이용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매일 실시해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한전MCS 김침원, 임업후계자 협회, 숲사랑봉사회, 산사랑네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소각행위 및 연기 발견 시 즉시 시로 신고해 산불발생 위험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산불의 주원인인 산림인접지역 소각방지를 위해 산림과 가까운 곳의 개대,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에 대해 파쇄작업을 지원해 농·산촌 주민의 일손도 덜어주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불법소각 5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산불조심기간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해 단순소각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등산 시 인화물질 휴대하고 담배꽂이를 버리는 등산객의 부주의한 행위와 농·산촌 주민의 소각행위가 한순간에 녹색산림을 잿더미로 바꿀 수 있다”며, “시민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승준/기자



강진 청자축제 ‘봄의 서막’ 알리며 흥행가도

화목가마 불지피기물레 성형 체험 등 전통 살리고

지난 23일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개막한 제52회 강진 청자축제가 ‘봄의 서막’을 알리며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25일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다소 쌀쌀하고 비바람을 동반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24일 이틀간 5만명 가까운 인파가 축제장에 몰려 강진 청자축제의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청자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8개 분야, 68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학습과 체험, 어린이 놀이터로서 특색 있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24일 오후 4시에는 천년 문화의 정수, K-컬처의 원조 강진 고려 비색청자를 구워내기 위한 ‘화목가마 불지피기’가 진행됐다. 강진원 강진군수와 이호남 강진군축제추진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를 대신해 명창원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불을 지퍼 축제 개막을 알렸다.

이를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청자축제 주무대를 꽉 채운 5,000여 명의 인파는 청자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 청자축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열화와 같은 참여와 체험으로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각종 부스가 북적거렸다.

키즈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봄봄슬라이드, 빙어잡이, 미니열차, 플레이셀라톤 키즈랜드, 청자 코일링, 청자머그컵, 샌딩아트, 청자풍경만들기가 인기를 끌었다.

물레성형과 불맹캠프, 장작패기, 봄봄슬라이드 등에 8,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체험의 소중함을 만끽했다.

전날 무렵에서 온 한 부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딸과 사위, 두 손녀와 함께 장작패기에 도전해 즐거웠다”며 호기롭게 웃었다.

특히 올 청자축제에는 어린이를 위한 ‘킬러 콘텐츠’로 싱어롱쇼인 ‘브레이드발소’를 선보였다.

24일 청자축제 주무대와 강진을 강진아트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공연을 펼쳤다. 축제장 주무대에는 3,000여명이 운집했고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800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인근 장흥에서 어린 딸과 함께 왔다는 한 관광객은 “강진의 지인으로로부터 좋은 공연이 있다고 해서 왔다”면서 “아이기가 너무 즐거워하고 공연이 끝난 후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찍는 시간을 가져 정말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어린이 프로그램 ‘브레이드발소’와 ‘신비아파트’는 오는 3월2일과 3일에 공연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강진 청자축제장 나들이도 많이 떠났다.

이들은 여행사 등을 통해 강진으로와 고려청자를 살펴보고 고려시대 의상을 입어보며 천년 문화의 정수를 느꼈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다프네(23)는 “말로만 들던 셀라톤(청자)

를 보니 한국 문화의 지력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가 여기서 비롯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함께 온 이집트 출신 유학생 수루(27) 역시 연신 엄지척을 치켜들며 서툰 한국어로 “한국을 전세계에 알리는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로 가면 강진여행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민의 이색적인 축제 참여도 이어졌다. 화훼1번지답게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고려청자가 구워지는 온도인 1,300도를 상징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1,300송이의 장미를 일일이 손에. 쥐어주며 환영의 인사를 대신했다.

강진 청자축제장은 이와 더불어 청자와의 다각적인 만남을 위한 ▲명품 청자 판매관 ▲차와 도자의 만남 ▲청자와 백자의 만남 ▲장미와 청자의 만남 ▲강진 명품 청자 아울렛 4층도 선보여 상당한 판매고를 올렸다.

고려청자를 현대에 잇고 친근감 있게 만날 수 있도록 ▲청자 입체 퍼즐 만들기 ▲청자 탁본 체험 ▲청자 도판 체험 ▲청자 파편 모자이크 등의 다양한 체험과 함께 강진 민간요에서 제작한 신상품도 전시됐다. 일부 민간요는 ‘반값’으로 할인하는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밖에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VR체험을 비롯해 미디어아트 역시 호기심을 자극, 청자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24일 오후 6시에 열린 개막식 축하쇼에는 트로트계의 BTS 장민호와 홍진영, 문희옥, 서지오, 현진우 등이 출연, 강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신나는 여흥을 안겼다.

강진 청자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리는 도암면 백련사 동백축제도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대부분 버스를 대절해 왔다. 이들은 백련사 동백축제를 걸으며 호젓함을 느꼈다. 현장사진 인화, 탁본체험, 무료동백차 시음으로 남녘의 봄을 소소하게 즐겼다.

특히 이번 강진 청자축제 ‘반값 가족여행’ 접수가 본격 시작돼 향후는 물론 관광객들의 호응이 커 향후 성공 축제에 얼마나 기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52회 강진 청자축제와 강진 백련사 동백축제는 오는 3월3일까지 계속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자축제 개막 초반 비가 오는 등 날씨가 다소 쌀쌀했음에도 5만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와 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서 “반값 강진여행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고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으로 강진의 신선하고 다양한 1차 농수축물을 구매해 가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강진군은 이어지는 많은 축제를 통해 관광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군민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윤호/기자



전북도 김관영 도지사, 서포터즈와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출정식 참여

전북현대, 대한민국 대표 명문구단으로 K리그 최다우승(9번)

전북특별자치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와 1,000여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2024 K리그 출정식을 개최했다.

전북현대는 지난 1994년부터 전북에 연고를 두고 K리그 최다우승과 프로리그 출범이후 역대 최초로 5연패를 달성하는 명문구단으로 2024 시즌에는 K리그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현대는 지난 10월에 부임한 이도현 단장과 단 페르레스 감독은 발 빠른 영입전을 펼쳐 국가대표급 선수와 최전방 외국인 공격수를 보강하고, 지난 1월초부터 2월초까지 두바이 전지훈련을 마치고 시즌 준비를 마무리했다.

전북현대 출정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해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 시즌권을 구매하고 선수단과 서포터즈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올 한해도 “선수들이 부상 당하지 않고 몸 관리를 최선을 다해주 시기 바란다”며, “전주성에 승리의 함성소리(오오렐레 ~오오렐레~)가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널리 울리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현대를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12번째 선수인 서포터즈분들에게 “올 시즌에도 변함없이 전주성을 지키기 위해 열띤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전북현대 개막경기(3.1일, 대전하나시티즌)를 관람하는 등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서포터즈와 함께 K 리그 우승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현대를 응원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과 선수단은 “2024년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도민들이 전북현대



경기를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현대는 오는 3월 1일 대전

하나시티즌과 K 리그 홈경기를 시작으로 2024년 K 리그 대장정에 오르게 된다.

이남출/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 유일 4년 연속 '민원 서비스 최우수기관' 선정

행안부·국민권익위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최상위 '가' 등급 달성



광주시 북구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 주관 '2023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서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대민 직접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 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별 '가'에서 '마'까지 5개의 평가 등급이 결정됐다.

북구는 민원실 안전 장비를 분청과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여 주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했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평가항

목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들으며 개선방안을 관계인들과 함께 모색했고 북구 관내 27개 전체 동에 생활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민원 사항을 신속히 처리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에 북구는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에만 주어지는 최상위 '가' 등급을 달성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고 향후 정부포상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4년 연속 성과는 구민 중심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민원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앞으로 민원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3관왕 등극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

전남 완도군은 지난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송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완도군은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2년 연속 K-웰니스 브랜드 대상(해양치유 분야), 'K-브랜드 어워드'에서도 해양치유 분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 수상으로 '해양치유' 분야만 3관왕을 차지했다.

올해 처음 개최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행정혁신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기관의 사기

진작과 지방자치 발전 기여를 목표로 마련됐다.

완도군은 저출산, 인구 유출로 지자체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생존 전략 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해양치유는 청정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으로 완도군은 9년 전부터 관련 사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하며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현재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기후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 각종 공공시설을 운영하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센터 개관까지 쉽지 않았던 여정이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뒷받침되어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됐다"면서 "비교 우위의 자원을 활용한 완도만의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군이 해양치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웰니스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양영욱/기자

목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종 보일러 대상...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시가스 공급지역내에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사업물량 5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지원액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60만원이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내 건축물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세입자) 중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와 공급자가 구매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일러 공급자가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ecosq.or.kr) 또는 기후환경과에 방문 및 등기우편(목포시 수문로 32, 4층 기후환경과)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이며, 신청자가 사업물량을 초과

하게 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공공 배달앱 '떡깨비'와 상생 배달앱 '땡겨요' 이용하세요!

보성군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지역 경제 살리기

보성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공공 배달앱 '떡깨비'와 신한은행에서 출시한 상생 배달앱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다양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떡깨비'는 지역 화폐인 보성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축제·휴가철에 할인이벤트(예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땡겨요'는 다가오는 3월 31일까지 첫 주문 시 최대 1만 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해 각각 1.5%(떡깨비)와 2.0%(땡겨요)의 낮은 수수료로 부담을 완화했으며, 가맹점주는 가입비, 월 이용료, 광고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떡깨비'와 '땡겨요'는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각각 누리집(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 발굴과 가입 유도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떡깨비

지금 바로 다운로드

- 공짜배달
- 지역화폐 사용 가능
- 다양한 이벤트
- 중개수수료 1.5%
- 월 사용료·입점비 무료

는 품목을 다양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활기찬 온라인 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신안군 '피아노의 섬 축제' 4월 개최

해변에서 100+4대 피아노 음악 감상



신안군은 피아노의 섬으로 지정된 자은도에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피아노의 섬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100+4대 피아노, 섬의 파도를 타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첫째 날인 27일은 사전 심사를 통과한 104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100+4 피아노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리고, 다음날인 28일은 사전 참

여 공모를 통한 관람객들이 직접 피아노를 함께 연주해 볼 수 있는 '나도 피아니스트'가 주요 공연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 부대 행사로는 피아노 거리공연, 다채로운 프린지 공연,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피아노 체험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고, 푸드 트럭과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할 예정이다.

박우량 군수는 "4월의 봄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피아노의 선율과 함께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번 축제를 준비하여, 많은 분이 오셔서 자연 속에서 피아노를 통해 문화적 감성을 높이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新安군으로 초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올해 'K-U시티 프로젝트' 지방정주시대 본격 실행!

K-U시티 프로젝트 17개 시군, 지역소멸대응기금 291억 원 투입 예정

올해 경상북도는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지방 정주 시대 실현을 위해 지난해까지 인력양성협약을 체결한 17개 시군, 29개 대학, 30개 고교, 95개 기업과 함께 'K-U시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경북도는 2024년을 'K-U시티 실행의 해'로 정하고 지방 정주 시대 실현을 위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 17개 시군의 U시티를 구체화하고 실행시켜 나가며, 남은 5개 시군도 U시티 컨설팅을 완료한다.

올해 경북도와 17개 시군에서는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 사업은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 83억 원, 연구지원센터 건립 60억 원, 정주 환경 조성 140억 원,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7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먼저, 지역산업기반 인력양성 및 혁신기술개발로 17개 시군에 83억 원이 투입된다.

K-U시티 전략산업과 연계해 도내 대

학과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전략학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대학-기업 협력 연구 및 사업화 등 혁신 기술개발 연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1시군-1대학-1특성화(기업)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양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조성은 2024~2026년간 총사업비 400억 원(개소당 80억) 규모로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에서 추진한다.

셋째, K-U시티 참여 기업 종사자 및 학생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세아 하우스 및 청년 레지던스, 임대주택 등을 조성한다. 숙박업소

경주시는 다가구 주택을 새롭게 고쳐 공유 복합문화공간과 주거용 속소를 조성하고, 상주시는 80호 규모의 주거공간, 커뮤니티센터, 청년 취업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며, 봉화군은 조립식 주택단지 40개 동을 조성하는 등 총 7개 시군에 2025년까지 280억 원을 투입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K-유머·K-POP·K-스토리 등 K-U시티 문화콘텐츠 자원을 활용,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의 기업 근로자와 대학생까지 공유하도록 K-U시티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7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웹소설·웹툰·드라마 등 스토리 산업 연계 K-스토리 여름 페스티벌 개최, 코미디 콘서트, K-POP 체험 아카데미, 요가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문화 콘텐츠를 지원한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방시대 선도모델 확산을 위해 항공 MRO와 항공 물류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로 K-U시티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세부 사업계획은 의성 공항신도시와 연계해 항공 MRO와 항공 물류 관련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및 명품 주거단지 조성, 교육 및 문화공간 조성 등 항공산업 U시티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는 대학-기업-지방정부가 상생협력으로 공동 기획해 교육·취업·주거·결혼 등

해 청년 지방 정주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지난해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3억 5천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K-U시티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서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결혼해 누리고 살 수 있는 청년 지방정주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자동차 평균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 원 인센티브 지급

대구광역시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참여자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제도다.

올해 모집 규모는 자동차 5,249대로 특·광역시(서울시 제외) 중 최대 규모로 운영되며, 신청 기간 중 선착순으로 모집·마감된다.

참여 대상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으로 소유자 기준 1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상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중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참여 신청하고,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전송된 문자 URL에 등록하면 된다.

이후 10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참여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오는 12월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참여자 4,143명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2,612명에게 약 1억 8천8백여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1인당 평균 71,890원)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은 1,065톤으로 30년 생 소나무 약 11만 7천 그루의 온실가스 흡수량에 해당하는 감축 성과를 거뒀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대구시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현금으로 혜택을 돌려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부산우수제품 쇼핑샵 '동백상회' 입점 기업 모집

2.26.~3.21. 부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하면 돼

부산시는 내일(26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산우수제품 쇼핑샵 '동백상회'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주)신세계가 협력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에 마련한 상생 공간이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36개 기업이 이곳에 입점해 185여 개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업은 30개사 내외로, 입점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입점일로부터 6개월간 동백상회 매장에 자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동백상회에서는 매장 운영·관리와 함께 특별 판매전 등 시즌행사를 추진한다.

입점 희망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심사를 진행하며, 상품 검증을 거쳐 입점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5월 중 동백상회에 입점해 5종 이상의 자사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제품교체 등 운영기관 방침에 따라 입점기간은 연중 수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소비 유행(트렌드)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시즌

별 상품 배치 기간 수시 조정, 매장 내 시식 및 체험 공간 마련, 매달 입점 기업의 자발적 프로모션 기획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심비에 이질리는 MZ세대부터 가성비로 주목하는 4050세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백상회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1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호 시 디지털경계혁신실장은 "동백상회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이나 브랜드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 브랜드의 시장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부산지역 제품 홍보와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입점기업 모집에 경쟁력과 역량을 갖춘 부산지역 우수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고 탄소배출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올리고

탄소중립포인트 | 자동차 | 참여 안내

1차 모집기간 '24. 2. 26(수) ~ 3. 29(금) (신청은 오전, 차량은 무기한 상회)

2.26(수)~3.08(수)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세종

3.04(수)~3.15(수) 부산, 경남, 경북

3.11(수)~3.22(수) 경기, 강원, 제주

3.18(수)~3.29(수) 서울, 인천, 광주, 전남, 전북

2차 모집기간 '24. 4. 1(수) ~ 4. 12(금) (신청은 오전, 전 차종)

1차 모집에서 선착순 마감에 한해 미신청 지역 대상

입점 신청서 접수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https://car.opoint.or.kr>) 접속 또는 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

참여혜택
포인트 참여된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탄소중립포인트 콜센터 1660-2030

청송군,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청송군은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경상북도 내에서 매년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특별대책 추진 기간 동안 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 및 기동단속반을 운영

하여 입산통제구역 입산자 및 화기소지자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진화 헬기 골드타임제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할 계획이다.

특히, 정월대보름 당일의 안덕면 청년회에서 주최하는 달집태우기와 폭죽터뜨리기 행사를 포함하여 관내 8개 읍면 곳곳에서 행사가 개최 예정되어 있으며, 각종 무속행위들이 성행해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차헬기 출동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읍면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기시킴은 물론, 유관기관(청송소방서)과 협조하여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정월대보름 전으로 비소식이 있으나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산림 및 산림인접 지역에서는 민속놀이와 무속행위를 자제하여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을 보존하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언론협회 제6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영양군 언론협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23일 언론협회 사무실에서 오도창 군수, 김석현 군의장과 의원, 김유희 교육장, 이충원 경상북도 의회 농수산위원장 등 관내 기관단체 장들과 영양군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영양군 언론협회는 군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언론 본연의 역할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고 있다.

김동진 이임 회장은 "재임 기간 협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모든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라고 했으며 신임 회장인 남승모 회장은 "김동진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 협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언론인으로서 초심을 잊지 않고 공익을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협회의 역할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도창 군수는 "남승모 신임 회장과 제6대 회장단들이 주축이 되는 언론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제공, 군민의 대

변인으로서 우리 군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행안부와 합동으로 해빙기 현장 안전 점검

김학홍 행정부지사,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함께 직접 현장 살피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4일 정월대보름 휴일도 잇은 채 선제적 해빙기 현장 안전 점검을 위해 봉화군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지구와 오그래미 지구단위종합복구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현국 봉화군수 등과 함께 봉화군 지역 재난 대비와 복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추진했다.

합동점검단은 먼저 봉화군 급경사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상황과 주민 대피시설을 둘러보며 재난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급경사지 조기경보시스템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이는 목적으로 운영한다.

다음 합동 점검은 피해복구비 46억 원을 투입해 피해 원인의 근원적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봉화군 봉성면 오그래미 지구단위종합복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복구작업 진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향후 계획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들과



깊이 있게 논의했고, 우기 전 착공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이한경 본부장에게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마을순찰대'제도와 'K 도민 보호 재해복구 패스트트랙'에 대해 설명했고, 이 본부장은 두 사례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마을순찰대'는 시군 책임공무원과 마을 이장 등 주민대표가 함께 산사태 지역 등 위험 지역을 상시 순찰하는 제도로 민간-시군-도-행안부를 이어지는

관리 체계로 구성됐다.

'K 도민 보호 재해복구 패스트트랙'은 시군 재해복구사업을 최대 60여 일 앞당겨 신속한 추진을 돕는 경북도 적극 행정지원 제도다.

행정안전부와 합동 점검을 수행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도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이번 현장 점검으로 도민 보호와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과학자의 고뇌를 표현한 웰메이드 뮤지컬 글로벌 K-뮤지컬 '마리 퀴리'

2023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유통협력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2개년째 걸쳐 진행되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라이브(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뮤지컬 '마리 퀴리'가, 다가오는 3월 16, 17일 양일간 오후 2시, 6시 30분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오후홀에서 진행된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여성 최초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마리 퀴리의 삶을 기반으로 신물질 라듐을 발견하고 라듐의 양면성에 대해 알게 되며 마리 퀴리가 겪는 일들을 풀어낸 뮤지컬이다. 마리 퀴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신선한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는 웰메이드 뮤지컬이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2020년 초연 이후 수많은 상을 휩쓸며 폴란드, 영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3년 만에 국내 무대에 다시 돌아와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마리 퀴리 안동 공연에서는 마리 퀴리 역에 뮤지컬 배우 김소현, 이정화를 비롯하여 강혜인, 효은, 박영수, 김지철, 김찬호, 양승리 등의 명품 출연진들이 대거 참여한 최상의 뮤지컬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사전에 뮤지컬 워크숍을 실시해, 워크숍을 신청한 안동시 관내의 중, 고등학교에서 윤희진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와 박병성 뮤지컬 전문지 더 뮤지컬 국장이 마리 퀴리, 라듐에 관한 강의와 뮤지컬에 대한 해설 등 이번 공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뮤지컬 마리 퀴리'는 VIP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66,000원으로 초등학생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김광열 영덕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인구정책 대전환 피력

영덕군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와 인구정책에 대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통령령제실 실행정수조건설기획단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분과장을 맡고 있는 장효천 국가지역경쟁력연구위원을 초청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이해와 실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개요와 기본방향, 투자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투자계획 평가항목 및 평가포인트, 타시·군 우수사례 등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장효천 원장은 투자계획 수립과정의 충실성, 체계적인 인구소멸 원인 분석, 현황과 기본구상 간 논리적 연계성, 사업발굴 근거 및 우선순위 분석, 사업 내용의 구체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의 운영, 사업 중간 점검 및 성과관리 등 전략적인 접근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과 인식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이 병행되어야 해결 수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정책의 안정적인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문화/기자



'미래농업 전문가 육성의 산실' 제14기 봉화농민사관학교 입학생 모집합니다

봉화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 5일까지 봉화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봉화군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의 주축인 고품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한 2024년 제14기 봉화농민사관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제13기 봉화농민사관학교는 사과과정, 스마트농업과정이 개설돼 집중호우 및 각종 자연재난 상황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며 입학생 76명이 수료했다.

올해 제14기 봉화농민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과, 창업마케팅 2개 과정이 선

정됐고, 학과별 50명 정도의 입학생과 함께 3월부터 약 8개월 간 과정별로 20회,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실습, 현장견학 등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입학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3월 5일까지 입학지원서와 개인정보사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농업기술센터 기획교육팀 또는 읍·면 산업팀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봉화농민사관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봉화농민사관학교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역량 강화로 교육생 모두가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는 큰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경주시, 정월대보름 2025 APEC 경주유치 한마음으로 기원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등 시민 무사안녕과 만사형통 기원



경주시가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5 APEC 경주 유치 기원 정월대보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천둔치 강변행사장에서는 경주문화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가 열려 액운을 정화하는 의미를 담은 '소원기 달집태우기'를 통해 시민의 무사안녕과 만사형통을 소망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특히 달집태우기에 이어 진행된 'APEC 경주유치 희망 풍등 날리기' 행사에서는 LED 풍등 200여개가 정상회의의 유치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으며 일대 장관을 연출했다.

이번 희망 풍등 날리기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홍보마케팅 협업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APEC

정상회의의 유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 캠페인 홍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풍등의 고체연료 대신 헬륨가스를 주입한 풍등을 넣고 LED 전구를 달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획됐다.

한편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천둔치 외에도 지역 곳곳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기원하고 새해 액운을 몰아내는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다양한 세시풍속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양동마을에서는 양동마을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양동마을 민속놀이' 행사가 열려, APEC 유치 화합 줄다리기, APEC 유치 화합 줄다리기를 비롯해 지신밟기, 풍물놀이, 고취대 공연 등 전통 민속을 계승하는 축제의 마당을 연출했다.

또 안강 칠평천둔치에서는 시민 한 마음문화축제를 통해 APEC 유치 기원 달집태우기와 읍민 안녕기원제가 열렸으며, 그 밖에 감포, 건천, 외동, 양남, 내남, 산내, 천북, 월성, 보덕 등 읍

면동에서도 달집 점화를 통해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빌고 새해 새로운 희망을 기원했다.

김성학 부시장은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고유의 세시 풍속인 정월대보름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소원 성취하는 풍요로운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하나 된 염원을 통해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APEC 유치전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울진해경, 영해면 사진항 인근 해상 밍크고래 혼획 접수

길이 5m, 둘레 2m 25cm 불법포획 흔적 없어



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25일 오전 04시 30분경 울진군 영해면 사진2리항 동방 1.3km(0.7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급, 관리선)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60대, 남)는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울진해경서 측산파출소에서는 A호가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나가 고래를 확인했으며, 길이 5m, 둘레 2m 25cm이었고 국립수산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

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장문화/기자

예천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예산 18억 투입, 슬레이트 건축물 481동 처리

예천군은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예천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18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460동, 지붕개량 21동 총 481동을 지원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창고 등 비주택은 최대 약 540만 원, 주택 최대 700만 원, 주택 지붕개량 연계 신청 시 지붕 개량비로 5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은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과 지붕 개량비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이며,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으로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경북농업기술원, 사과 다축농가 영농현장으로 해결 적극 지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사과 다축 재배 농가(h/10a당)가 안정 정착을 위해 현장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하고, 농가 컨설팅 및 농업인 집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축 수형은 하나의 대목에 2개 이상의 원줄기(축)를 수직으로 배치해 과일 벽(Fruiting wall) 형태로 재배하는 수형으로 유럽(이탈리아 등)에서는 2000년대 2축 수형을 시작으로 2010년대에 이르러 다축형(4~10축)과 구요형까지 재배 체계가 변화했다.

다축 재배를 할 때 생산성(톤/10a당)이 60~140% 이상 증가(일반 2.5톤 → 다축 4~6톤 이상)되고, 착색-

전문기관 협력 현장 전문 지도인력 양성, 도 단위 농업인 컨설팅 및 집합교육 추진

품질이 35% 정도 향상되며, 노동시간(h/10a당)이 22% 이상 절감(일반 140시간 → 다축 110시간) 되는 등 관행 재배 대비 생산비가 절감(1만 7천 원 → 1천 원/kg 이하)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소장 윤태명 교수)가 이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해 2010년대 중반부터 2~10축형에 이르는 전문 연구 결과 및 국내외 사례, 재배 기술 등을 빠르게 전파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사과 다축 재배 전문 지도 인력 양성을 위해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와 협력해 '23년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16명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교육을 추진했으며, 을

해도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화 과정(12회)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 교육은 2월 22일 청송을 시작으로 봉화(2. 27.), 의성(3. 7.), 영천(3. 21.)에서 도 단위 농가 컨설팅과 집합교육을 추진한다.

한편, 농업기술원은 2020년부터 미래형 사과원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5개소(18.93ha)를 시범 보급해 왔으며, 23년에는 전문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12월까지 150여 명의 농업인 대상 도 단위 현장 컨설팅과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재배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사과 다축 재배 기술을 확산시켰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미래형 사과원(다축형)으로 경북도 사과 생산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진과 협력하고 현장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해 경북 내 사과 다축 재배 기술이 안정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무인민원발급기 권역별 24시간 운영...풍기읍 등 5개소

3월 1일부터...읍면동 재택당직근무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영주시는 3월 1일부터 읍면동 당직을 재택근무로 변경함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현재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19개)를 비롯한 25개소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돕고 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5대로 시청과 풍기읍·부석면·영주1동·가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선정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총 119종으로 다양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남 새마을봉사과장은 "권역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 연장으로 시민들이 휴일과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평일 근무 시간대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법정 공휴일 제외) 오후 8시까지 시청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권민원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출생·사망·혼인신고 접수 등 업무가 가능해 시민들이 바쁜 일과시간이 아닌 퇴근 이후 한결 편리하게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선일/기자



부산시, 2023년 대기중금속 조사 결과 발표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부터 매년 대기중금속 측정망에 포집한 미세먼지 내 중금속 12개 항목을 분석해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26일) 대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한 '2023년 대기중금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중금속 조사'는 대기중금속 측정망에 포집한 미세먼지(PM-10) 내 중금속 12개 항목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역내 주거지역 3곳(광안, 덕천, 부곡), 상업지역 1곳(연산), 공업지역 1곳(학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측정항목은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니켈, 비소, 베릴륨, 알루미늄, 칼슘, 마그네슘으로 총 12개다.

2023년 대기중금속 조사 결과, 농도는 강수량 증가 및 동절기 우천 등에 따른 대기의 세정 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의 연간 평균 농도는 대기환경기준(0.5µg/m³)의 약 1.9퍼센트(%)인 0.00969µg/m³로, 전년도 0.0145 µg/m³ 대비 크게 감소한 수치다. 7개 특·광역시 중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용도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에서 5개 중금속(니켈, 크롬, 망간, 철, 구리)의 평균 농도가 가장 높았다.

소규모 도금·도장·주물주조업체가 밀집한 공업지역(학성)에서는 주요 5대 중금속의 평균 농도가 상업(연산) 및 주거(광안, 덕천, 부곡)지역 대비 3.5배가량 높았다. 이는 그 외 중금속 항목의 평균 농도 차이인 1.4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이다.

대기중금속 물질을 대상으로 암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건강위해도 평가'에서는 발암위해도가 인구 백만 명당 2.2명(공업지역 4.6명)으로 조사돼, 시민들이 건강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다.

발암위해도는 성인이 기대수명 동안 일정 용량 이상으로 노출될 시 암이 발생할 확률이다.

이번에 조사된 발암위해도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기준(100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정승윤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중금속 농도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 시의 환경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 의료기관 방문 '시민 건강과 안전 지키는데 최선'

이시장 "시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에 두고 긴급상황 대비에 철저 당부"



이강덕 포항시장은 24일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해군포항병원과 포항세명기독병원을 방문한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의료파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해군포항병원은 국방부가 의료파업 사태에 대비해 민간에 개방하는 군 병원 중 하나로 지난 20일부터 내과 등

9개 진료과목에 대해 응급실을 개방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세명기독병원은 17과 126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포항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해군포항병원을 찾은 이강덕 시장은 "응급실 진료를 민간에 개방하고 긴급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포항병원에 감사하다"며 "의료파업 확대로 민간인 환자 폭증 등 유사시 대응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포항 세명기독병원을 방문한 이 시장은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병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7일부터 남·북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등에 대한 점검과 의료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구보건소와 군 병원, 지역 종합병원과 공공의료 기관 등 민·관·공 협업을 통해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윤태용/기자

대구광역시, 방문학습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촘촘한 학습지원에 나서다!

초등 전 학년 기초학습지원 확대 및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대구광역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취학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3세~12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학습지 전문업체(㈜대교)와 공동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방문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인원은 약 170명으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학습과목은 한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지 교사가 가정을 1:1 방문해 사전 학습 능력 검사 후 자녀의 수준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추진한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학습지보다 어려운 가족에게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어 매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희망하는 가족은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주소지 구·군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구·군 가족센터에서 언어발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다문화가

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적절한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강사가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결혼이민자(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업학습 지원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녀 교육활동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대상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가 해당되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5월~7월경 주소지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기초학습·진로설계·교육활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상반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넌 만나 봄'신청하세요~

청송군청소년수련관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2024년 상반기 프로그램 '넌 만나 봄' 참가자를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넌 만나 봄'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 운영하며, △방송댄스 △쿠킹클래스 △로봇과학 △드림고실 △창의수학 △보드게임 △한자교실 △주산교실 △ITQ 자격증 과정(초등반, 중등반) △한국사 교실 등 평소 지역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1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교육, 취

미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청송군에 거주하는 초등 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으로, 각 프로그램별 정원에 따라 총 200여명을 모집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경험이 청소년 성장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대응 전략회의 개최



영양군은 22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박준호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중점 발굴사업 담당 팀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달한 '2025년 투자계획 평가계획'을 설명하고 신설·변경된 평가항목(지표) 등을 점검했다.

특히 가점사항에서 평가항목으로 평가기준이 상향된 계속사업의 집행을 제고 방안과 영양군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될 신규 투자사업의 발굴 및 보완·수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근수/기자

문경시, 청년월세 특별 지원 2차 신청 접수

신청시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문경시는 2월 26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 1차 신청에 이어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2차 신청을 받아 선정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월세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 재산이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1차 신청에서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방문 신청이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를 덜었는데 이번 2차 신청으로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4.2.26(수)부터 2024.2.29(토)까지

신청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재산 기준 충족, 무주택자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1234-5678 (청년지원팀)

금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50억 원... 0.8% 금리로 최대 1억 원 지원

3월 21일까지 이메일 신청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센터 방문 신청

서울 금천구는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0.8% 금리로 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905백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리를 1.5%에서 0.8%로 인하했다. 또한 더 많은 기업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지원한도를 1.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연 4회) 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의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3월 21일까지 이메일 제출 또는 구청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G밸리 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G밸리 기업지원센터 접수도 병행한다.

배정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기본 순위가 선정된다. 평가항목은 2023년 매출액과 수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창업(스타트업) 기업, 금천구 특화산업(패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와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중소기업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관악구, 나도 '조상 땅 찾기'로 2천억 원의 주인공이?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악구청 방문하면 즉시 확인 가능...온라인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 가능



관악구가 추진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매년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 파악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재산 권리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조상 땅 찾기 신청 건수는 8,628건으로 약 9,200여 필지, 8.11km² 상당 규모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구민이 약 4,200여 명으로, 약 4,800여 필지(2.6km²)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라며, "이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한국부동산원 2022년 통계)로 환산했을 때 1천 9백 3십억 원 상당 규모이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구청 부동산산정보과에 직접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K-GEO플랫폼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보 조회 방법은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을 거쳐 조상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입력한 후 신청인의 관할 거주지인 관악구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해당 사이트에 첨부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구에서는 담당자 확인을 거쳐 신청자에게 3일 내에 부동산 조회 결과를 발송하며, 신청인은 신청 결과를 K-GEO 플랫폼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단, 제공된 토지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조상 명의의 된 토지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속등기 절차를 밟아야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토지 소유현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많다"라며, "구민들이 편리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올해 안정된 생활밀착형 스마트 정책 집중 추진

4개 분야 60개 사업에서 스마트 생활밀착정책 추진 박차

서울 성동구가 모든 구민이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스마트 생활밀착정책 추진을 위한 '2024년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사업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해 말 '스마트도시 재인증'으로 다시 한번 검증된 우수한 성동형 스마트정책을 바탕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스마트 복지·환경 ▲스마트 소통·정보 ▲스마트 교육·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쳐 60개 사업에 83억 6천5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의 올해 목표가 생활밀착형 정책의 중점 추진인 만큼, 구민 생활 불편사항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 해소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실현된 다발지역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기정화 및 음압 기능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의 확대 설치이다. 연기 제거, 담배공초 재활용 재떨이, 비상벨 등 주요 기능을 갖춰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는 구민 모두를 존중하는 정책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2019년 송파구 세모너 사건을 계기로 성동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성동원플러스원' 사업 활성화를 집중 추진한다.

이 정책은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의 주도로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으로 도움을 주고자 시작된 정책으로, 하나의 물건을 구매할 때 한 개 값을 더하여 지불하고, 추가 지불된 값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용자)에게 나눔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책 도입 초기에는 응답동, 송정동



2개 동의 6개 참여업체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17개동 129개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는 사업 6년차로 적합한 나눔대상자의 발굴,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내실 있는 '성동원플러스원' 사업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포용도시 행정구현을 위한 최적의 기술과 행정의 접목을 꿈꾸는 '성동정적기술연구회'는 올해도 스마트한 활동을 이어간다. 2019년 1기로 시작된 '성동정적기술연구회'는 미래형 버스 승차대 '스마트심터', K-방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출입자 명부 관리시스템', 어린이 통학차량 내 안전사고 예방 '슬리퍼차일드 체크 시스템',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 등을 만드는 기반이 됐다.

올해도 스마트 기술, 에너지, 안전, 환경, 사회 5개 분야에서 업무 역량이 많은 리더와 특목 튀는 아이디어로 무

장한 신규직원들이 뭉쳐 주민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성동구민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 '성동형 스마트 심터'의 추가 설치한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성동구의 생활 필수공간인 '성동형 스마트심터'는 현재 관내 53개소 운영 중이며, 올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심터는 버스승차대의 기능을 넘어 구민소통공간이며 피난처이자 대피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심터는 최근 위기상황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성동구의 필수 공간으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 구민 행복과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1인가구가 방 구할 땐? 송파구 주거안심매니저와!

지난해 261건 제공, 전년 대비 30% 증가, 계약 상담 가장 많아

"매니저님 덕분에 전세보증금 협의도 잘하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해서 계약 잘 마무리했습니다!"

청년 1인가구 A씨(20대)는 올해 초 임대인 과실로 같은 집 전세계약을 두 번이나 해야 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공시가격의 150%를 초과하여 임대사업자 신청이 반려됐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처음 겪은 상황에 다급한 마음으로 송파구청 문을 두드렸다. 주거안심매니저와 3차례 상담 후 적정 수준으로 보증금을 하향해 조정하고, 보증보험 가입까지 꼼꼼하게 챙겨 무사히 재계약을 완료했다.

송파구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1인가구와 1인가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 안내, 계약상담, 주거 탐색, 계약 동행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며 계약 과정의 어려움을 돕는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건으로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지난 한 해에만 26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계약 상담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 탐색 58건, 정책 안내 54건 등의 순이었다.

실제 결혼을 앞둔 B씨(30대)는 신혼집 계약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신혼집이 미등기된 건물의 첫 입주자다 보니 불안 요소가 많았는데 송파구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여 계약 전 확인



사항, 특약 등을 함께 살펴보고 전세 계약서 작성을 도왔다.

주거안심매니저 윤 모씨(60대)는 "계약 경험 부족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도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1, 2회 상담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할애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 돕는다"고 활동 취지를 설명했다.

상담 신청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전화 문의하거나 서울시 1인가구 포털에서 하면 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최소 3~4일 전에 예약하면 좋다. 상담은 매주 월,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지만 주거안심매

니저와 일정 조율 후 추가 상담도 가능하다.

이 밖에 구는 구청 누리집에 '안심 전·월세 정보' 게시판을 운영하여 계약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전·월세 계약 시 점검 사항, 각 기관의 신규 사업 안내, 정부 정책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로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정책 정보 안내와 불법 중개행위 단속 등에도 힘써서 구민들이 임대차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홍수/기자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The 44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제44회 진도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4. 3.11. 월 ~ 3.13. 수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주최 Jindo |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도내 의료계 집단행동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위기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23일(09:00)부터 신속하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의료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오전 8시30분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중앙부처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7개반 10개팀으로 구성, 의료상황대응, 환자이송, 도내 거점병원 순찰, 중앙 및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19일부터 시작되어 도내 종합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도 상당수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도내 대형병원 4곳은 최대한 정상진료 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이 대형병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지역은 도민의 의료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빠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대본이 운영됨에 도내 의료계 동향, 응급환자 이송체계 등을 내용으로 시군 부단체장, 보건소장, 소방 등과 회의를 금일 개최하여 대책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중앙부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 보건소, 공공의료기관(14개소) 등 평일 연장진료, 주말진료 시행 등으로 도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효철/기자



충남도, "필수 의료 진료 공백 최소화" 당부

김기영 행정부지사, 26일 단국대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방문

충남도가 정부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 도내 유일한 상급 종합병원인 단국대병원을 찾아 응급 의료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26일 천안시 관계자와 함께 단국대병원 암센터를 방문해 김재일 단국대병원 병원장, 박희근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비상 진료 대책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으며, 단국대의 건의·요청 사항 등 어려움을 청취하고 단국대

병원 시설을 순회·점검했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00명 중 73%인 2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224명(74%)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률과 근무 이탈률이 더 높으며, 특히 중증응급환자, 중환자, 암 환자 등 필수 진료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와 천안시는 단국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의료 공백 최소화 및 응급의료체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정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속 협력하고 의료 시스템을 안정

화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단국대병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앞장서 헌신해 온 병원으로, 이번 의료 공백 위기 속에서도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 중인 데 감사드립니다"라면서 "암센터를 비롯해 뛰어난 의료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단국대병원의 필수 의료 공백 최소화와 응급 의료체 유지에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기준중위 소득 60%이하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지원

태백시는 오는 26일부터 무주택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입주하는 무주택가구에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50%, 최대 1,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2년, 최대 2년 연장)동안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청년 1인(19세~49세)가 구이며, 신청방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신청서, 약속서,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등을 지참하고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 바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상근/기자



원주시, 취약계층 사망자 라스트 클린업 사업 협약식 개최

원주시와 원주장례복지문화원(원장 변미경), 봉주루Wonju(대표 김동희)는 오는 26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고인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취약계층 사망자 라스트 클린업 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

'라스트 클린업 사업'은 취약계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주거환경을 정리하고 유족을 위로·후원해주는 사업이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웰-다임(Well-Dying) 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최근 노인 1인

가구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더불어 취약계층 사망자의 거처 정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충북도,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 '심각'격상에 따른 충청북도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청주, 충주의료원 진료시간 연장 운영조치, 의료공백 최소화 노력

의대 증원 관련하여 전공의 사직,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구성했으며, 기존 운영 중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수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응급의료체계 유지 점검과 개원의 집단 휴진 상황에 따라 보건소 연장근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은 상황전개에 따라 평일 진료시



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및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웹페이지와 응급의료제공 앱을 통해 상시 제

공한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여 공공의료기관(청주, 충주의료원) 진료시간 연장 등 수의로 공백 방지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파견 결정 등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 종료 이후 위기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대책본부 철저운영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점검, 시군 의사회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집단행동 참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춘천이 축구로 들썩인다... 강원FC 춘천 홈경기 준비 분주

3월2일 오후 4시 30분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강원FC 정규리그 첫 경기

강원FC 홈경기를 앞두고 춘천시가 경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민프로 축구단 '강원FC'(대표이사: 김병지)는 오는 3월 2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2024시즌 K리그1 첫 홈경기를 갖는다.

경기를 앞두고 시는 대시민 홈경기 홍보와 원활한 경기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에 여념이 없다.

특히 지난 5일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역 내 학생, 유소년 축구 꿈나무 등 청소년에 현장 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강원FC 유스 시즌권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후 각 기관, 단체 등에서 시즌권 구매·기부가 이어지면서 어린이·청소년 관중 또한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강원FC 춘천 홈경기 개막전에는 6,199명의 유료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최만식/기자

춘천에서 열리는 K리그 상반기 9경기를 모두 관람할 수 있는 강원FC 춘천 시즌권은 3월 31일까지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다.

홈경기 개막전 당일 입장권은 2월 24일 오후 2시부터 예매(시즌권 소지자는 하루 전인 23일 오후 2시부터)할 수 있다.

강원FC는 당일 경기장 일대를 찾는 서포터즈와 관광객,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장외 행사, 체험 공간, 먹거리 트럭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마련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홈경기 개막전과 시즌권 구매 등 적극 안내로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홍보, 주차, 편의시설 등 강원FC와 긴밀히 협조하여 준비 중인 만큼 춘천시민들도 강원FC 첫 홈경기를 찾아 선수를 응원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 다양한 시각으로 범죄예방 방안 모색해야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아산시는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온양온천 원도심거리(온양온천 초등학교 인근)에 실시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발 용역 착수보고회(아산시장 주재)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업체의 과업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아산경찰서 및 범죄예방 디자인 전문가·자문위원, 주민대표위원,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5개 관련 부서 실과장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은 도시환경을 설계할 때 범죄를 예방하는 구조로,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 기법을 말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아산경찰서 현장 진단 자료를 분석해 온양온천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선정했으며, 이 공간에 통학길 조성, 야간 보행로 개선,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우범지역 환경개선,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제시한 의

견을 검토하고 디자인 설계 용역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사업이 추진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경귀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은 유관기관의 협조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통합해 다양한 시각으로 범죄예방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원호/기자



서울시, 방학동 685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방학역세권 대표 친환경 고품격 단지 조성”

통경축 계획 및 다양한 높이의 주동배치로 북한산 조망 가능한 열린 경관 창출

서울시가 '방학동 68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방학동 685일대는 인접 근린상업지역 상향가능지, 우이신설선 연장에 따른 환승역세권으로서의 방학역 위상 변화에 걸맞는 대표적 친환경 고품격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대상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통해 조성된 준공업지역 배후 저층주거지로서 노후된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상지는 우이신설선 연장,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인근의 모아타운 및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대대적인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곳이다.

우이신설선 연장으로 방학역이 우이신설선과 1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으로 위상변화가 기대되며,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대상지와 맞닿은 지역이 근린상업지역 상향 가능지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변화 흐름에 맞춰 지난해 5월부터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팀을 이뤄 원팀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① 단지 내·외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녹색 열린단지 조성 ② 지역 내 부족한 공공시설 공급을 통한 지역 소통 활성화 ③ 교통체계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④ 도봉산, 북한산 조망과 인접 저층주거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먼저, 도봉로와 인접한 근린상업지역 상향가능지 주변에 단지와의 완충공간인 휴게공원, 문화공원(복축)을 계획했다. 또한 단지 전체를 다양한 외부공간이 계획된 녹색 열린단지로 조성하면서 단지 내를 관통하던 도로(방학로2길)를 복축의 문화공원, 상업가로 및 주민 공동시설과 연계되는 공공보행도로로 변경하여 쾌적성을 높이고 단지 내·외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지역에 필요한 청소년시설을 대상지 북측 문화공원에 조성,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하부에 입체적 공용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저층 주거지 주차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당로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단지 내 노인 일자리 지원시설도 배치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대상지와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고려해 도봉로145길, 도당로 등 도로를 확폭하여 원활한 교통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도 및 대상지 내 건축한계선을 활용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도봉산과 북한산으로의 조망이 가능한 통경축 계획을 통해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높이계획을 수립했다.

방학역 3번출구에서 도당로변으로 이어지는 조망축으로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여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단지내 다양한 높이의 주동배치를 통해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방학동 685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단지 내·외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쾌적한 녹색 열린단지로 계획했다”며 “노후한 저층주거지였던 방학동 일대가 동북권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테르메, 송도 골든하버 글로벌 웰빙 스파·리조트 투자지 확인

유정복 시장, 루마니아서 시설·운영상황 확인 ... 투자이행 협약식 개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에 글로벌 웰빙 스파·리조트를 추진 중인 테르메 그룹이 투자 의지를 확인했다.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현지시간 2월 24일 가장 최근에 조성된 루마니아 테르메 리조트를 찾아 시설·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테르메 그룹과 ‘투자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테르메 그룹은 테르메 그룹 코리아가 송도 골든하버에 스파·위터파크를 포함한 세계적인 웰빙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 테르메 글로벌 차원에서 인지도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 사업부지 조사와 사업 계획 제출을 완료하는 한편, 오는 2025년 6월까지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투자 협약서를 제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테르메 그룹은 현재 루마니아 및 독일 등에 직영 스파 운영 제휴 방식으로 총 4개의 웰빙 스파 &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직영인 루마니아 테르메 부쿠레슈티의 경우 지난 2016년 개장해 연간 15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유럽 최대의 웰빙·휴식 공간으로 거듭 확장되고 있다.

테르메 웰빙 리조트는 1년 365일 운영이 가능한 실내 돔 형태의 스파 공간을 식물원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여



가공간이다.

테르메 그룹만의 첨단 노후가 담긴 정수, 공기정화, 오존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1,500그루 이상의 아자수와 80만 분의 식물로 구성된 수목원 인테리어도 도심 속 자연의 힐링공간이다.

유리로 된 외관도 매우 독특해 송도 골든하버에 조성되면 도시 경관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테르메 루마니아를 찾아 직접 둘러보니 이러한 시설의 최적지가 국제도시 인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천시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사업인 만큼 테르메 그룹이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인천시는 성공적이고 적시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하네아 본사 회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루마니아를 방문해 시설 견학을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테르메 그룹은 인천에 특별한 웰빙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2년 1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유 시장과 스티리안 야콥 테르메 그룹 부회장(Senior VP), 김인숙 테르메 그룹 코리아 운영총괄대표(CO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은 테르메 유치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송도 골든하버 2개 필지를 매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김종남/기자

음성군, '소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전 선포

총사업비 128억원 투자계획! 충도저수지 관광 시대, 서막 연다

음성군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소이면 충도저수지 주변에 가족캠핑장, 유아숲 체험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소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음성군 지역혁신협의회는 2024년도 제1회 심의를 통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을 소이면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선정하는 안건을 원안 가결시켰다.

2027년까지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해 소이면 소재 충도저수지 주변 19만9899㎡ 군유지를 개발한다.

군은 이 계획에 반려동물과 함께 숲으로 떠나는 여행을 주요 콘셉트로 하는 '애니포레 캠핑장'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해 즐길 수 있는 유아 숲 체험장과 가로수길, 수려한 미관을 자랑하는 충도저수지의 지리적 자원을 활용한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담았다.

세부 내용으로는 760m 연장의 진입 도로 개설 사업을 시작으로 면적 3만

2000㎡의 반려동물 놀이터,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캠핑장을 군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유아 숲 체험원, 가로수길을 조성해 연계 관광사업을 확대하고, 24년도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충도저수지와 주변 임야에 4.9km에 달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음성군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총 4개 부서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부서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전략을 내세워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가족 캠핑장 조성 사업이 소이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관광자원이 부족한 음성군 관광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 음성군수 역시 지난달 17일 소이면에서 열린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전략을 설명하며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주민들의 염원과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 추진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최만식/기자



NH NongHyup

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경북교육청, 모두의 행복한 삶을 담은 경북형 미래 학교 조성!

경북교육청은 23일 김천학생문화예술센터 드림마루에서 2024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사전기획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기초를 이은 학교 단위 사업으로써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

교 시설을 개축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2023년도에 이월된 8개교와 2024년도에 새로 선정된 18개교를 합해 총 26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연수에 참석한 사업 담당자들은 공간 재구조화 사업추진 과정과 미래 학교 조성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며, 학교 사업추진 중에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활동이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공감을 끌어내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학교 조성 사업’이 될 수 있

도록 앞으로 다양한 홍보와 연수를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년 공간 재구조화 사업 담당자 워크숍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 2024년 멘토 위촉식 및 사전교육 실시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2월 23일에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멘토 14명을 대상으로 2024년 멘토 위촉식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역사회 상담관련 전공자(대학생 1학년 재학 이상인 자 포함) 14명을 멘토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멘토는 학생 멘토와 1:1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지 및 학교생활과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활동을 한다. 또한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스포츠, 문화, 진로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위촉식 이후 멘토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전교육을 진행해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을 높였다. 또한 활동 중 예상되는 어

려움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산교육지원청 이양균 교육장은 “경산교육지원청 Wee센터 멘토들이 학생들의 자아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좋은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송광삼/기자



경북교육청, 다문화 가정 예비 학부모의 초등학교 생활 궁금증 해소!

유·초 이음교육 홍보영상 ‘초등학교 생활 알아보기’ 외국어 자막 서비스 지원

경북교육청은 2월 23일부터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초등학교 생활 안내 영상 자료를 외국어 자막 서비스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다문화 가정 예비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지원되는 자료는 지난달 29일 보급한 놀이·배움·삶을 잇는 유아교육 홍보 영상 중 ‘초등학교 생활 알아보기’편을 영어와 베트남어 자막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1학년 교육과정 △한글 책임교육 △놀이수업학기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위클래스 △전자기기 사용 범위 등을 안내한다.

그리고 영상 자료는 경북교육청 유튜브 채널 ‘맛컬머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다문화 가정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번 영상 자료를 통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빠른 학교적응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성남시청 업무협약 체결

- 2024 가족친화 미래세대 육성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월 23일 성남시청에서 ‘2024 가족친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성남시어린이집총연합회, 성남공립유치원장지구장학협의회, 성남시립유치원협의회가 참여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에 ‘학교장 인구조육 워크숍’, ‘유치원 교사 인구조육연구회’, 성남 학생자치회 리더십 캠프의 ‘토론 활동’을 실시 했고 2024학년도에는 성남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초·중·고등학교 90학급 대상 ‘인구와 미래’ 강좌를 신설하는 등 가족친화 인구조육을 선제적으로 실천해온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협약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인구조육의 이해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역량 강화 활동 지원 ▶결혼·출산·양육 관련 인식 개선 콘텐츠 활동을 통한 가족 친화적 태도 강화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족친화 인식 형성 교육 프로그램 발굴·공유·확산 ▶가족친화 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오찬숙 교육장은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오늘의 협약이 마중물 되어 성남은 보다 가족친화적이며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아이들은 더 밝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삼/기자



부산교육청, 방과후행복카드 이용시설 59곳으로 확대

26일 오전 신규 2기관과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에서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협약을 체결한다.

이 카드는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 후 또는 주말 활용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체험학습 인프라를 갖춘 지역기관과 협약을 통해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체험학습 인프라를 갖춘 ‘(주)바이텍스 부산타워’, ‘클럽디오아시스 스파&워터파크’ 등 2개 기관과 체결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들 2개 기관에 부산방과후행복카드 협약 기관임을 알리는 현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방과후행복카

드 이용 시설은 모두 59곳으로 늘어난다.

협약기관을 이용할 학생들은 ‘부산교육 다모아앱’과 연동한 모바일 카드를 활용해 편리하게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단, 중·고등학생은 학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모바일 카드 사용 방법은 전 초·중·고등학교의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승희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희망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양준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착공...2026년 총 215세대 주택공급

통합심의 이후 착공까지 8개월 소요... 빠른 사업시행으로 원주민 전원 재정착

과거 불합리하고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 및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오세훈표 新주택공급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신·구축 건물이 혼재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으로 정책 도입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 현재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심의 통과 8개월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착공으로 2월 26일 공사를 시작해 2026년 8월 완공예정이다. 총 215세대가 공급된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

현재 통합심의를 통과한 모아주택은 총 33개소(4,506세대)이며 그 중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

운 외 모아주택 첫 착공) 및 강북구 번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첫 착공)을 포함하여 총 18개소(2,677세대)는 2024년 올해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사업시행을 맡는 지정개발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부담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상황이다.

사업 대상지는 구의역(7분 거리)과 강변역(5분 거리) 사이에 위치한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로 심한 경사,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휴게공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했지만, 이번 사업시행으로 총 215세대, 지하2층/지상 10~15층의 아파트(4개동) 단지로 탈바꿈하여 총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자를 위한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장, 주민카페, 휴게공간들이 생길 예정이다.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설정부터 실제 착공을 하는 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모아주택 착공 1호'란 칭호가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로구역 내 도로 체계 및 주변 저층주거지 노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었다.

또한,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



에 2중(7층 이하) 일반주거 지역의 당시 층수 기준(최고 10층)을 적용하여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동이 빼곡하게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및 관련 조례 개정 후, 완화된 층수 기준(최고 15층)과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동 수 감소(6개동 → 4개동), 세대수 증가(211세대 → 215세대), 건폐율 감소(35.58% → 31.62%) 등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은 한층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지(강북구 번동)는 지난 2023년 7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현재 토지등소유자 이주 종료로 올해 6월 착공 및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총 5개 사업시행구역으로 지하2층/지상28~35

층, 총 1,242가구, 13개 동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 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2중(7층))에 대한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 및 원활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우려됐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많이 완화된 데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로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모아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경남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점검 등을 위한 '시군 예산부서장 회의' 개최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안내

경상남도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을 13조 538억 원을 정하고,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신속집행 추진 등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시군 예산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8개 시군 예산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별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진사유 해소 방안과 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신속집행을 위해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 시군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목표액을 10조 원으로 정하고, 지난 19일 국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비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원팀으로 힘을 모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편성된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도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성과위주의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인사·조직·예산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도 추진 중이다. 이에 시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를 통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안내하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재정 운용에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개학기 위해요소 집중 안전점검

광주광역시는 개학(1학기)을 맞아 학교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5주간 관내 155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4개 분야로 자치구와 분야별 소관부서, 교육(지원)청, 경찰, 민간단체가 참여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속 등 법규위반 단속 ▲학교주변 공사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단속 ▲등하교 시간 통행·통학차량 등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유해환경감시단, 지역경찰서, 자치구, 교육(지원)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

료 납품업체 등 위생 상태, 식중독 예방 점검 ▲분식점 등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개학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전담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민간단체(옥외광고협회) 합동 단속·정비반을 꾸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및 정당 현수막 정비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상가·유흥업소·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낡고 오래된 간판 안전점검 등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등하교 시간대 위주로 집중 현장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학교 주변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강화를 위해 새 학기 초등학교주변 안전취약 요소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대전시, 봄 행락철 대비 전세버스 일제점검

3월 20일까지 전세버스 780대 대상 차량 안전 점검



대전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시는 교통안전공단 및 전세버스운

송사업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립대전현충원 주차장에서 33개 업체 780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차로이탈경고장치,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시설 상태 ▲등화장치 적정여부,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소화기 상태, 비상망치 관리상태 ▲기타 차량안전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및 안전교육 확인증 비치 여부 ▲하차벨 정상 작동 여부 등 어린이 운송용 자동차 안전기준 설비 상태에 대해 철저히 점

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위반 행위를 한 부적합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일제 점검은 전세버스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세버스 이용객이 많은 봄 행락철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용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전국 최고급 멜론 세지 멜론

나주시 NAJU CITY



www.yyg.go.kr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니면 언제라도...
의외롭게 영양나들이



물

영양의 평온하고
은밀한 아름다움 느끼기...
영양 대표 관광지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을 수놓아...
영양이 빛나는 별빛여행지



얼

시공간의 대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째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서식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